

파리 아들 딸들과 함께한 '아버지' 칠순잔치

푸른 눈의 중년 여인은 김오현의 둘째 딸 이순이가 됐다. 덩수룩한 머리의 금발 청년은 셋째 아들 삼남이, 맨 앞자리의 흑인 여성은 막내딸이다. 아버지 김오현의 소개를 받은 그들이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할 때마다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김오현의 칠순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었다.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 파리·브뤼셀 공연

남도 특유의 해학·언어유희로 관객들과 소통

가야금·해금 연주 진도아리랑 등도 함께 어우러져

지난 19일과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박물관 공연장과 벨기에 한국문화원(원장 이진원) 다목적홀은 광주에서 건너간 '아버지' 김오현의 칠순 잔치 집으로 변신했다.

배우 박윤모씨의 모노 드라마 '아버지(Le pere)'가 해외 관객들을 만났다. 음악, 무용 등에 비해 연극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외국 관객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다. 하지만 이날 남도 특유의 해학과 언어의 유희를 잘 살린 불어 자막과 함께 소개된 연극 '아버지'는 관객들과 소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각국의 세세한 문화는 다르지만, 11남매를 키운 아버지의 보편적 이야기와 중간중간 잔치를 축하하는 컨셉으로 삼았던 국악 연주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국립 기메박물관은 1889년 문을 연 아시아 전문 박물관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2년 '아버지' 파리문화원 공연에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어 번역을 맡았던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씨 부부가 진행하는 2015 K-VOX 페스티벌과 기메박

물관의 '아시아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이다. 한국 연극으로는 기메박물관에서 공연되는 첫 작품이었다.

1998년 초연된 '아버지'는 소설가 한승원의 희곡이다. 한국 역사의 흐름과 함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김오현이 11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버지'는 인간사 회로애력이 모두 담긴 작품이다. 다른 배우 없이 홀로 일인타역을 펼치는 '아버지'는 이번 해외 공연을 더해 모두 209회 관객들을 만났다.

한국 공연과 달리 솟대 등으로 단출하게 무대를 꾸민 파리 공연은 박씨의 관록과 노련함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소극장용 작품을 300석 규모 중극장 버전으로 올리다 보니 배우에게는 다소 벅거운 무대였지만 객석까지 내려와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극의 강약을 조절했다.

박씨와 공연을 이끌어간 이는 젊은 국악인들이었다. 가야금 연주자 김래경씨와 해금 연주자 김보나씨는 '출항가' 중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을 들려주고, 상

송 '상월리제'를 연주,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관객들은 아버지, 노인, 부인, 아들 등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하며 한시간 동안 맘을 쏟아낸 박씨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고 세련된 커튼콜이 이어졌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대부분 현지인이었다.

공연장에서 만난 개비 에이츠씨는 "한 사람의 배우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다"며 "관객과 연기자의 구분이 따로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극 형식도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25일 벨기에 공연은 80석 규모의 문화원 강당에서 펼쳐졌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프랑스와 달리 벨기에에서 한국 문화 위상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브뤼셀 중심가에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면서 뒤늦게 국악, 클래식 등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문화원에서 연극이 공연된 것 역시 '아버지'가 처음이다.

브뤼셀 공연은 문화원측으로부터 브뤼

셀 관객들의 경우 문화적 수준이 높고 공연 관람시 관람하는 자세를 취하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다소 긴장된 상태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관객들은 박 씨의 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함께 공연을 만들어갔고 리셉션에서도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릭 만텐덴씨는 "자막이 있기는 했지만 자막 없이도 충분히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관객과 연기자의 벽이 부서지는 느낌을 들었다"며 "주인공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내 아버지도 생각났다"고 말했다.

기욤 가스씨는 "즉흥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 흥미로웠고 내가 직접 잔치에 참여한 기분이 들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군산에서 시집 와 오랫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들어 반가웠다는 중년 여성과 연극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한국 입양아 역시 배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주 공연 예술을 유럽에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한 배우 박윤모씨는 "공연장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곳에서 외국 관객을 놓고 공연하는 게 힘들었지만 관객들의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해외 공연이 연극과 국악 등 광주 예술이 유럽 등 외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리·브뤼셀=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버지' 아시아 작품 중 가장 흥미로운 무대

위베르 라오프 파리 기메박물관 프로그래머
애플 유물 4만5000점 보유 문화전문 박물관

1889년 문을 연 국립 파리 기메박물관은 사업가 에밀 기메가 아시아 전역을 돌며 모은 유물 4만 5000여점을 보유한 아시아 문화 전문 박물관이다. 기메 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과 함

께 다양한 아시아 공연 예술과 영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티벳 등 올해 초청한 아시아 작품 가운데 가장 정통 연극에 가까운 작품이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박



위베르 라오프

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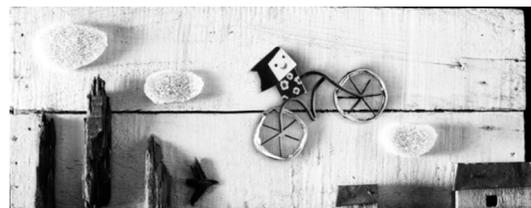
물관에서 판소리 등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연극은 처음이라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할 지 저 역시 관심이 많았어요. 관객들과 잘 어우러지는 걸 보고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위베르 라오프 기메박물관 오라토리오 프로그래머는 "이번 공연에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를 전공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했는데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라오프 씨는 또 한국 공연 때보다 무대 장치나 조명이 부족해 다소 아쉽다는 공연팀의 설명에 "연극 '아버지' 공연팀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와 공연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근호·주홍 '고물자전거' 원화전



7월22일까지 선운중 '이공삼철'

고근호·주홍 작가 부부가 오는 7월22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선운중에 있는 작한 예술 실천공간 '이공삼철'과 '고물'에서 '고물자전거 원화전'과 '업사이클 아트 체험전'을 연다.

'고물자전거'(사진)는 부부가 폐품들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입혀 지난 2005년 펴낸 동화책으로, 최근 10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

전시는 주홍 작가의 '고물자전거 원화', 고근호 작가의 '즐거운 상상', 선운중의

'뒷바 프로젝트-서랍 속 추억'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전시 기간 조경현 작가의 '업사이클 체험전 : 예술작업장 '고물 체험', 이승일 작가의 '빈 병이 조망들'로, 선운중 학생들의 '잡목이 생활용품으로', '안 읽는 옷이 컵받침으로' 등 체험이 이어진다.

선운중 작한 예술 실천공간 '이공삼철'과 '고물'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목공, 페용 등을 활용해 공간을 바꾸는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관람료 대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면 된다. 단체관람 사전 접수는 062-960-8079로 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 스토리 발굴 시도민 기자단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7월2일까지 '2015 스토리 발굴 시도민 기자단'과 '문화가 있는 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스토리 발굴 시도민 기자단'은 광주·전남 지역에 산재한 원전 스토리 등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된다. 선정 규모는 16명(팀)으로 공모일 기준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 대학

생 서포터즈'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 행사와 장소 등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된다. 선정 규모는 16명(팀)으로 공모일 기준 광주·전남 소재 대학의 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tct.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0-245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하반기 박물관대학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과 광주박물관(회장 김성산)은 공동으로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015년 하반기 박물관대학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제23기 광주박물관대학의 주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이다.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신화, 역사,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룬다.

강사진은 김학주 서울대 중문과 명예교수, 조인수 한예중 교수, 정재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방병선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모두 12차례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9월2일부터 11월1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 062-570-70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45천(보1억 월68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룡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투데이 경매

- 농성교차로부근 주유소부지 자동차관련사업, 카센터 타이어전문점 임점추천 지하 1층~지상 5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 장성군 북이면 백암사 IC인접 친환경농산물, 전문공장 교통입지우수, 기계설비완비 대지 9341㎡ 건물 2031㎡ NPL 가능, 2011년 신축 감정가 41억 4천 최저가 14억 9천
- 운암동 아파트단지 우수상권 편의점, PC방, 카페 추진 지하1층 ~ 지상3층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 5천 최저가 5억 9천
- 광주 소촌동 라인2차 도로변 코너 지상 3층 건물 신축건물 월세100이상가능 대지 103㎡ 건물 177㎡ 감정가 1억 6천 4백 최저가 1억 6천 4백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NAVER *7월22일*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죽아화원3년 근조화원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